고정관념에 묻혀 있지 말고 환경에 따라 조절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 17면에서 계속

그럼으로써 이걸 최초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생각을 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살아가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왜? 살아나가는 데에 달라지고, 옛날에는 육신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그렇게 애를 쓰던 여러분이 지금은 아파트도 그렇고 살아나가는 데에 얼마나 여자들이 편리합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보다도 또 후일에 '아하! 그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하는 거를 또 새삼스럽게 몇 번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설계를 가지고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무루에서 유루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니돼. 그걸 비교하자면 여러분이 마음이 동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현실로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에서 유로, 유에서 우리가 개발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바로 무루에서 가질 수 있어야만이 유루의 현실의 환경에 따라서 조성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부터도 목숨을 그렇게 중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만약에 나같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아주 없어지고 그 눈물을 흘리지 말자고까지 다짐을 속으로 수년을 해오기도 했죠. 차라리 죄 없는 사람들이나 편안하게 살게끔, 그렇게 아픔을 느끼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것도 그때는 나도 모르는 생각에서 그랬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진실한 마음만 있지 아주 몰랐었죠. 그런데 그런 모르는 생각이 있다면 왜 남을 탓하지 말고 또는 남이 잘 알고 못 알고 그것도 탓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모든 것은 내 탓이 아닐까요? 시대를 잘못 만난 것도 내 탓이요, 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단호히 이 한 방울의 짙은 것을 가지고서 그냥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시대를 못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뒷받침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그랬다는 걸 너무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석존으로부터 수많은 선종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이기도 했고, 그냥 스러져 간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몸뚱이는 스러져 갔으나 그 마음만이야 어찌 죽었겠습니까? 본래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본래 갈 곳도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나는 말입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혓바닥을 깨물고, 깨물어서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좋아. 옛날에 모든 사람들이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이기도 했고 또는 그냥 몸이 변질돼서 스러져 가기도 했다. 그러나 그분들은 죽은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마음과 마음, 뜻을 한데 모아서 누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은 내 탓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탓인 관계상 나는 그대로 갈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 뜻을 누구나,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나쁘다든가 좋다든가 너는 모른다든가 그런 거 상관없이 말입니다.

나는 실천이 문제야! 나는 말 백 마디 천 마디보다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한 것을 한데 떨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한마디를 만약에 거짓으로 아무렇게나 하기 좋은 말로 그냥 해 버리고 말아 치운다면, 자기가 아는 것이 바로 이 우주간 법계에서 천체가 알기 때문에 그건 거짓으로 돌릴 수가 없고 또 거짓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방울이 우주를 덮을 수도 있고 굴릴 수도 있고 들 수도 있다는 그 점에 의해서, 자동적인 용을 할 때에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조화를 시켜서 바로 한 점의 이 조화를 볼 때는 모두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저 산천초목과, 아니 이 한국만 보실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모두가 울창하고 거룩하게 생명들이 살고 있고, 울창한 숲과 울창한 물과 울창한 생명들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에서 사는 생명들이나 들에서 사는 생명들이나 산에서 사는 생명들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이 주워 먹고 사는 게 뭐가 우리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잡아먹고 사는 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고등동물이라고 해서 뭣이 그렇게 다른 게 있습니까?

나는 어떤 때는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도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영원히, 이 삶을 보람 있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계발되지 않는 이상, 마음을 터득하지 못하는 이상, 전체적인 마음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 모든 법칙에 따른 이 도리를 모른다면…. (녹음 안됨)

모두 살아나가는 거를 볼 때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광대하고 무변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리석고 큰 게 하나도 없고, 깔볼 게 하나도 없고, 어느 거 하나 깔볼 수가 없이 바로 너나 나나 이렇게 주워 먹어야만 살고 주워 먹어야만 움죽거릴 수 있다는 그 점을 생각했을 때 나는 항시 눈물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몇 식구가 살아나가는 데도 고달프다고 하고 또 거기에서 순간순간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순간순간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사시겠죠. 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전체를 봐 본다면 하나의 뜻도 가질 것도 없고, 산다는 욕망도 먹는다는 욕망도 입는다는 욕망도 아무것도, 생각이 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무엇을 더 가져야 하고 무엇을 더 먹어야 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또 남편들이 나가서 그런다 하더라도 이의가 없어, 나 같으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것에도 이의가 하나도 없고 자비로써만이 그저 묵묵히 펴 나갈 수 있는 그런 뜻을 갖는다면, 스스로 그 모두가 자비로워지고 스스로 영롱해지고 영리해지고 똑똑해지고 지혜롭게 펴 나갈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돼 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하나하나를 우리는 좀 더 넓게 보고 넓게 생각하고 세계를 좀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안방에 앉아서 세계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습니까? 지금은 좁은 시대가 아니라 넓은 시댑니다. 넓은 시대를 한 눈으로 바로 한 주먹에 쥐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묘하고 무변하고…, 뭐를 더 가져야 하는지 뭐를 덜 가져야 하는지 그것도 도대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 데다가 천체적인 우주와 더불어 같이 껴 있으니 너무나 이것은 광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본다면 대천세계의 큰, 우주 세계의 모든 것들 또는 이렇게 작은 우리 소우주의 모든 문제들이 큰 거 작은 거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깝고 먼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권을 가지고 큰 거 작은 거, 멀고 가깝고가 없이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없앨 수는 없지만 진리를 활용할 수는 있다는 얘깁니다.

언젠가도 이런 얘길 했죠. 이사를 가는데 어려운 집에서 덮을 것도 없이 가는 그런 이삿짐도 있었습니다. 이건 환경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있는 집은 다 덮기도 하고 비 안 맞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돈 들여서. 없는 집은 그 비를 맞아야만 하고, 또 비 안 오는 날 갈 수도 있건만 계제가 그렇게 못 되면 비오는 날도 할 수 없이 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난 여러분 가정을 내 가정이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내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예도 없거니와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예도 없습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예도 없습니다. 그럴 때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내 살림이기 때문에, 내 삶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비가 정히 올 때는 주인공에다 맡겨서 비를 안 오게 하고서 가거라. 환경에 따라서 이거는 씀씀이를 자유스럽게 쓸 수 있다. 정히 급하걸랑은, 남들은 돈이 많아서 병원에도 가지만 가난해서 돈이 없어 병원에도 가지 못하걸랑은 주인공에다가 맡겨라. 맡겨서 위기를 모면하고 거기에 맡겨서 다, 죽든 살든 당신이 알아서 해 달라고 맡겨 놔라. 그런다면 너희 가정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날까지 일러 주고 나왔습니다.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찾아서
자기를 낳아 준 육신의 부모와 둘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법의 부모와 육신의 부모가 어찌 다르며 부처의 부모가 어찌 다르겠습니까.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누구든지 나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다면, 또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법도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나를 갖다가 구더기로 만들어 놔도 좋고 짓밟아서 아예 가루로 만들어 놔도 좋다고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난 이 가슴에서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피가 용솟음쳤으니까. 여러분도 이 뜻을 진실하게 알아서 여러분의 그 조상을, '여러분의 조상' 하면 자기 자신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자기가 형성시켜서 이날까지 끌고 오면서 진화시킨 자기 주인공을 그렇게 못 믿고 또는 배신하고 또는 그렇게 은공을 모른다면 당신네들은 육의 부모의 은공도 모를 거야. 진실한 당신 조상의 그 은혜를 모르면 당신 육신을 낳아 준 부모의 은공도 모를 거라는 소립니다.

나는 너무 사무치고 사무치고 또 사무쳐서 열 번, 백 번, 스무 번, 만 번 이 세상이 다 끝까지 돌고 또 돈다 하더라도, 부서지고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난 꼭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어디고 안 뛰어든 데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야! 인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는 할 수 없을 텐데 인간의 인정이 이렇게 메말랐을까? 인정 빼놓고 사랑 빼놓고 불법이 따로 있을까?' 차마 그 소린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진정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각각 보고 인정,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 '야, 참! 인간의 인정으로 그럴 수 없을 텐데도 어쩌면 이렇게 메말랐을까.' 하는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하게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눈 속에도 비 속에도 파묻히고 또 파묻혀서 수없이 거듭거듭, 죽은 것도 한두 번 죽은 게 아닙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수없이 죽음을 죽었고 또, 또, 또 죽고 쉴 새 없이 죽고 또 죽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작년의 여러분은 벌써 이미 죽었고, 마음이 또 달라진 겁니다. 마음이 탄생한 겁니다. 그것이 환경에 따라서 얼마만큼 크냐 작으냐의 문제지 똑같이 그렇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전에 말입니다, 가재가 두 다릴 들고선 무엇을 그렇게 주워 먹는지 주워 먹는 걸 봤습니다. 나는 학식도 많지 않거니와 책을 볼 수도 없고 하얀 거는 종이고 꺼먼 거는 글씨라는데 도대체 그걸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시체로 지금 흘러서 새 법이 나오고 새 용어가 나오고 시대가 바뀌지고 이래도 도대체,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지금 잘 배우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욕심내서 탐내겠습니까? 이 머저리 같은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함을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여러분이 내 스승이고 여러 풀들이 내 스승이고 물이 내 스승이고 돌들이 내 스승입니다. 그 스승들을 보고서 나는 터득을 한 것뿐이지, 글을 보고 터득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말을 배우고 싶지도 않았고 또 글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쪼록 부모와 자기 조상의 은공을 모르지 말고, 자기 조상, 그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찾아서 자기를 낳아 준 육신의 부모도 바로 둘이 아니라는 것을 극히 아셔야 합니다. 내 법의 부모와 육신의 부모가 어디 다르며 부처의 부모가 어찌 다르겠습니까?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위약하게 보지 마세요. 나는 거듭거듭 수없이,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아프게 울면서 거듭거듭 피를 흘리면서 밟혀 가면서 이렇게 진화된 것입니다. 깊이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효도하십시오. 충성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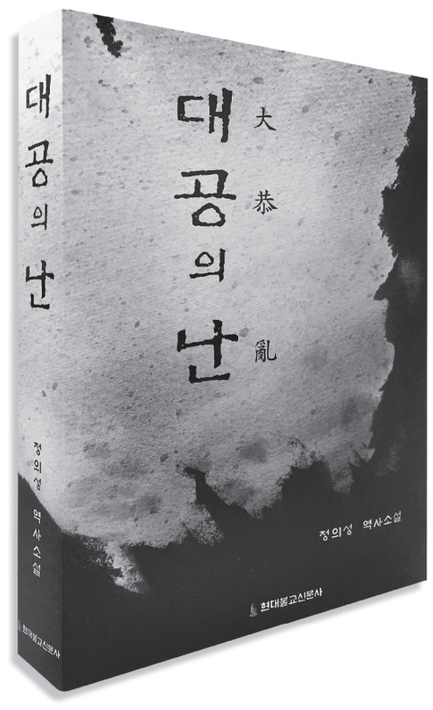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86년 4월 10일 일반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